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나오나... 화이자·머크, 개발 박차

‘화이자’, 이르면 내달 긴급승인 신청
獨 제약사 ‘머크’, 후기 임상 진행중
美 승인받은 치료제 ‘렘데시비르’ 뿐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세계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긴급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연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PF-07321332’를 1140명의 코로나19 환

자에 투여하는 새로운 임상실험을 발표했다.

화이자는 이번 임상에서 경증 코로나19 환자 1140명을 대상으로 PF-07321332와 함께 이전에 다른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사용되었던 저용량 리토나

비르와 투여한다. 환자들은 5일 동안 12시간마다 치료제 또는 위약을 받아 비교하는 방식이다.

PF-07321332는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주효소 활동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화이자는 이번 가을 안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임상 성공할 경우, 4분기 내 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개발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처럼 코로나19 확진 초기 단계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이다. 화이자는 지난 7월부터 중증 위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

으로도 별도의 임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로 알려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베클루리가 유일하다. 하지만 렘데시비르는 정맥주사제로, 아직 승인을 받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없다.

다른 대형 제약사들 역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독일 제약사 머크 역시 파트너사인 릿스백 바이오테라퓨틱스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후기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머크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임

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후반기 임상도 진행 중이다.

머크 역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몰누피라비르의 미국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머크와 몰누피라비르 170만회분을 12억 달러에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와 파트너사인 아테아제약 역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AT-527’의 초기 실험 결과 입원 환자의 바이러스 부하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2021년 하반기 공채 모집

채용설명회 마련

한미약품이 2021년 하반기 공개채용 서류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100여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공채는 ▲M.D. (메디컬 닥터) ▲국내영업 ▲본사 ▲연구센터 ▲팔탄공단 ▲평택공단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된다.

상세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등은 한미약품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이달 26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채 접수 기간 중 한미약품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2021 한미약품 채용 토크(채용설명회)’도 마련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채용 정보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채용 토크는 11일(연구센터, 국내사업부)과 16일(본사, 팔탄공단, 국내사업부) 줌을 통한 온라인 대화로 진행된다.

해당 시간에는 ▲제약산업 및 한미약품 소개 ▲채용 프로세스 ▲직무별 선배사원의 직무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현대백, ‘명인명촌 DIY 선물세트’ 선배

전통식품 장인 상품 모은 브랜드

현대백화점은 올 추석 선물세트 분판 때 기간 프리미엄 전통식품 브랜드 ‘명인명촌’ 상품을 고객 니즈에 맞춰 선물세트로 구성해주는 ‘명인명촌 DIY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명인명촌은 현대백화점이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식품 장인들의 상품을 한 데 모은 프리미엄 전통식품 브랜드다.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에서 77명의 명인이 만든 장류·식초류·주류·음료·간식 등 30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명인명촌 DIY 선물세트’는 4가지 용량(420ml, 200ml, 250g, 120g)의 용기에 담긴 150여종의 명인명촌 상품을 고객이 직접 골라 선 물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고객은 김명숙 매실식초(420ml, 2만 5000원) 등 식초류를 비롯해 문순천 제주어간장(200ml, 7800원) 등 간장류, 국령애 굴비 볶음고추장(250g, 1만 9500원) 등 장류, 그리고 박성춘 토판전일염(120g, 5500원) 등 소금류 등 최대 7개 명인명촌 상품을 선택해 선물세트로 구성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소변유기산 농도로 대사증후군 원인 규명”

함지희·김영상 교수팀

환자, 특정 소변유기산 농도 증가

차움 디톡스슬리밍센터 함지희 교수와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상 교수팀이 소변유기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서 어느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사증후군과 소변유기산 농도와 관련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탄수화물, 아미노산, 에너지 합성 등의 대사에 이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혈압 상승, 공복혈당의 상승, 좋은 콜레스테롤(고밀도 콜레스테롤) 저하, 중성지방 상승의 다섯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



함지희 교수

김영상 교수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진단된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뇌혈관질환 및 전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인체 내의 다양한 대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대사 과정을 찾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간 해독 효율, 장내 유해세균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함지희·김영상 교수팀은 차움에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받은 246명의 남성

과 283명의 여성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과 그 요소들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서 특정 소변 유기산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사증후군의 주요 병태생리로 알려진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대사증후군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사적 접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대사증후군과 소변유기산 농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첫 연구이며, 차움 이윤경·서은경·최상운 교수와 분당차병원 전혜진 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CCLM 7월호에 게재됐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배백식 경영전략실장 영입

GC녹십자는 배백식(45·사진) 경영전략실장(임원)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배백식 신입실장은 카이스트(KAIST)에서 토목공학 학사 및 경영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이후 2006년부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했고, 2014년 두산그룹에 입사해 ㈜두산, 두산중공업 등에서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해 왔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배 경영전략실장은 앞으로 GC녹십자의 중장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세경 기자

라보에이치, 누적 판매량 100만개 돌파

두피강화샴푸, 출시 1년 반 만에 성과

아모레퍼시픽 두피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에이치(LABO-H)’의 두피강화 샴푸(사진)가 출시한 지 1년 반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넘어섰다.

라보에이치는 2020년 3월, ‘두피스킨케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탈모 시장에 출시표를 냈다. 피부·모발·성분·미생물·고객경험 5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10년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해 모발을 잡고 있는 피부인 ‘두피’를 재조명했다. 특허받은 녹차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으로 두피 장벽과 모근을 강화해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라보에이치의 베스트셀러 두피강화 샴푸는 탈모 증상을 67.6% 완화한다. 단 한번 사용만으로 초미세먼지 99.8% 제거, 두피 유분량 86.7% 제거, 두피 수분량 81.9% 증가, 두피 각질량 32.1% 개선과 모발의 볼륨·탄력·윤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탈모 증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전반적인 두피 케어를 통해 탈모 예방을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알맞다.

제품의 인기 비결은 우수한 효능에만 있지 않다. 셀럽과 호흡을 맞춰 고객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지난 6월 한 드러그스토어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그맨 강유미, 이택조와 미용실 두피 관리 역할극을 선보였다. 여름철 두피 열 관리법을 소개하며 재미와 매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7월에는 유튜브 채널 방가네와 함께 열린 마켓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라보에이치는 모발을 이식하고 다양한 탈모 방지 샴푸를 써본 가수 미르와 두피 트러블로 고민하며 헤어라인 시술을 앞둔 배우 고은아 남매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으로 유명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9월 3일 (금)
음력 : 7월 27일

수도권 날씨
20~29℃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4 | 해질 / 18:59

연천 16/28, 동두천 17/28, 가평 16/27, 파주 17/28, 서울 20/29, 양평 17/27, 인천 20/28, 수원 20/28, 용인 20/28, 평택 18/28, 백령도 20/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